

(이)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좋은 것만 가득한 것도 아니다. 인체에 담배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나 해서 한마디만 하자면, 담배는 그것을 피우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에도 관계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담배가 자기 몸에 얼마나 나쁜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들 흡연자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24살의 여자로 지금까지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 할 자격은 없을지도 모른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의 기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도 가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가 있다. 그들은 나빠도 자기 몸이 나쁜 것이니까라며 신경쓰지 말라는 투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불안한 마음과 긴장했던 몸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그 한 모금(대)의 담배로 깨끗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담배가 그들에게 그러한 기분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담배는 보통의 평범한 약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병원으로 말하면 환자의 통증을 가라앉게 하기 위한 조금 강하고 위험한 약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나쁘니까 가능한한 피우지 말도록 하게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피우지 마시오라고는(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규칙을 만들어서까지 그것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고 피우지 않고는 자신의 의지에 맡겨두는 편이 좋다. 다만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워서는 안된다.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서 버스나 회사 같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는 스스로 조금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